

# 李陸史의 思想的 位相 試論

— 詩語 ‘무지개’ 를 통하여 —

尹 晟 龍

I. 머리말

II. 陸史의 사상 형성 과정

III. ‘무지개’ 해석

IV. 맺음말

## I. 머리말

陸史의 詩를 읽을 때 크게 두 가지 태도를 가정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육사의 행동의 본령은 어디까지나 독립운동에 있었고 시작 활동은 신분 위장의 방편이었거나 선비가 지니는 소양 내지 일종의 부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로 육사시에 접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육사는 독립 운동가이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시인이었고 따라서 일제에 대한 저항의 연장 선상에 그의 시가 놓여 시 또한 저항의 한 방편이라는 견해로 육사의 시에 접근하는 것이다. 1946년 「陸史詩集」이 발간<sup>(1)</sup>된 이후 이 후자의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육사 자신의 수필 〈季節의 五行〉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대목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詩人의 感情이란 얼마나 빠르고 複雜하다는 것을 세상치들이 모르는 것 뿐이오, 내가 들개에게 길을 비켜줄 수 있는 謙讓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正面으로 달려드는 표범을 겁내서는 한 발자욱이라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내 길을 사랑할 뿐이오. 그랬오이다. 내 길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은 내 自身에 犧牲을 要求하는 努力이오, 그래서 나는 내 氣魄을 키우고 길러서 金剛心에서 나오는 내 詩를 쓸 지언정 遺言은 쓰지 않겠오. ……다만 나에게는 行動의 連續만이 있을 따름이오. 行動은 말이 아니고, 나에게는 詩를 생각한다는 것도 行動이 되는 까닭이오. 그런데 이 行動이란 것이 있기 爲해서는 나에게 無限히 너른 空間이 必要로 되어야 하련마는 숫벼룩이 꿀앓을 만한 땅도 가지지 못한 내라 그런 華麗한 팔자를 가지지 못한 덕에 나는 房 안에서 혼자 곰처럼 덩굴어 보는 것이오.<sup>(2)</sup>

(1) 육사의 동생 李源朝에 의해 서울출판사에서 발간됨.

(2) 「陸史詩集 曠野」(螢雪出版社, 1971), pp. 89-90.

스스로의 정신을 ‘金剛心’이라고 표현한 육사의 이런 태도는 어떠한 압제나 비판도 모두 거부한다. 이런 그의 자존심은 시에 대한 자존심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육사의 살아 생전의 행적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육사와 직접 교유를 지냈던 사람들의 글<sup>(3)</sup>에서부터 육사의 ‘詩는 곧 行動’이라는 믿음이 詩學的인 여과를 거치지 않은 채 육사시의 해석을 위한 지표로 성립되었던 것이다. 지금의 우리 시점에서 돌아볼 때 식민지 체제하의 지식인들의 활동 가운데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선 독립운동보다 더 의미있는 가치를 지닌 활동은 쉽게 상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자의 견해를 따르게 되면 육사의 시에 대한 평가라든가 또는 문학사적인 위치를 드러내는 작업이 하찮거나 불필요할 지경이다. 실제로 그의 시가 동시대의 다른 시들에 비해 리듬과 시어의 운용, 수사적 차원, 기타 시적 기교 등에서 월등하다거나 독보적이었다는 평가는 주어지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기왕의 논의들<sup>(4)</sup>을 수용하여 육사의 사상적 위상을 살펴되 굳이 후자의 견해에 따르지만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그의 사상과 시의 동질성을 <絶頂>에 나오는 ‘무지개’를 통하여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일제하 한국의 저항시가 이를 수 있는 그 극점을 보여 주었다고<sup>(5)</sup> 평가되고 있는 이 작품에서의 ‘무지개’를 택한 이유는 ‘무지개’라는 기표와 그것의 의미내용, 육사 개인, 육사가 대표하는 집단의 사상적 흐름, 이 모두의 역사적 환경과의 관계가 비교적 잘 파악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지식인의 한 사람이었던 이육사가 일제하의 현실상황에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본고의 주된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시가 현실에 대해 반응하는 방향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3) 신석초, 이은상 등의 글이 대표적임.

(4) 몇 가지 대표적인 논문들을 플라보면 아래와 같다.

- 朴斗鎭, “陸史論”(『韓國現代詩論』, 一潮閣, 1971)
- 金宗吉, “陸史의 詩”(『나라사랑』 16집, 1974)
- 鄭漢樸, “陸史詩의 特質과 詩史的 意義”(『나라사랑』 16집, 1974)
- 金容稷, “抵抗의 論理와 그 精神的 脈絡”(『韓國現代詩研究』, 一志社, 1974)
- 金允植, “絶命地의 꽃”(『韓國近代作家論攷』, 一志社, 1974)
- 金興圭, “陸史의 詩와 世界認識”(『創作과 批評』, 1976. 여름호)
- 金澤東, “陸史 李源祿論”(『韓國現代詩人研究』, 民音社, 1977)
- 曹敏煥, “李陸史論”(『冠嶽語文研究』 제 2 집, 1977)
- 金鍾哲, “陸史詩의 意義와 限界”(『詩와 歷史的 想像力』, 文學과 知性社, 1978)

(5) 鄭漢樸, 『韓國現代詩의 現場』(博英社, 1983), p. 230.

## Ⅱ. 陸史의 사상 형성 과정

육사의 사상 형성은 그가 태어난 安東이라는 토양, 그리고 부계쪽의 李退溪, 모계쪽의 의병장 許蘊으로 이어지는 가문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sup>(6)</sup> 또 성장기의 조부로부터의 한학 수업은 육사의 선비정신을 함양시켰으며 이 선비정신은 이후 육사의 사상이나 행동을 지배하는 하나의 축이 되었다. 육사가 성장하고 신학문을 익히며 사회활동을 하는 동안 이 선비정신은 때로는 육사의 신념을 실천적으로 드러내 주는 정신적 토양이 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한계성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 한계성이란 그가 民衆이나 集團을 운위하면서도 실제로 선각자적인 엘리트 의식 내지 보수적인 양반 의식으로 선비정신이 발휘되던 경우를 말한다.

육사의 사상적 진보는 신학문을 접하고 몇 차례 중국을 오가면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가 접한 신학문의 내용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그것은 을사년부터 경술년 사이 朴殷植 등이 구국을 위해 교육우선을 주창하던 때의 신학문과는 달랐을 것이다. 西北地域에서 교육 운동이 맹렬하게 전개될 때 安東을 둘러싼 영남 지역에서의 志士들은 의병으로의 길을 택하거나 아예 節死의 길을 흔히 택했던 것이다. 따라서 육사의 신학문은 단순한 서양지식의 습득이라기보다는 민족을 위한 새로운 사상의 형성이라는 측면과 더 가까웠을 것이며, 나중에 그가 형제들과 의열단에 가입하게 된 것도 한학수업에 의한 선비정신, 그리고 이 선비정신과 결코 역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신학문을 토대로 한 사상에 의해 선택한 행동일 것이다. 의열단에 가입했다는 것은 일제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직접적인 행동을 택했다는 것이다. 육사 형제들이 의열단에 가입한 사실은 기록에 있으나,<sup>(7)</sup> 의열단원으로서의 육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벌였는가에 대해서는 지

(6) 金容稷, 앞 글, pp. 382-383 참조.

(7) 宋相燾, 「騎驢隨筆」(국사편찬위원회, 1971), p. 390.

是時慶山, 有李定基者亦志士也……乙丑正月定基至北京, 見國民黨正義部員南亨佑 大韓獨立黨軍政署代表裴炳鉉 義烈團員金昌淑, 皆曰今我韓獨立資金爲急, 其募金非破壞暗殺不可 而國境有警備甚嚴 輸入極不便, 定基曰此不憂吾叔父方在張作霖顧問 如得身元證明可無事, 三人大喜, 將拳銃彈丸若干與之又教爆彈製造法, 九月定基歸大邱, 與李源祿 李源祺 李源裕等 結秘密社, 運動及革命 於是亦入團 暗自活躍以俟其機

금 당장에는 알 길이 없다.

이 당시 의열단 외에 많은 군소 단체들이 민족해방 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었지만 김원봉이 세운 의열단만큼 주목을 받은 단체도 없었다. 바로 이 의열단과 김원봉의 사상이 육사의 사상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진다.

若山 金元鳳은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삼일운동 직후 유학을 포기하고 金若水, 李如星 등과 중국에서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로 결정한다. 그는 1919년 11월 義烈團을 결성하여 스스로 義伯이 된다. 의열단은 지하 비밀 단체로서 그 초기 활동은 무력에 의한 테러 활동이었다. ‘驅逐倭奴, 光復祖國, 打破階級, 平等地權’의 4개 강령을 그들 행동의 최고 이상으로 삼았으며, 김원봉은 公約十條, 暗殺對象, 破壞對象을 스스로 작성하였고, 암살 대상에는 반민족적 土豪劣紳이 포함되었다.<sup>(8)</sup> 의열단의 테러 활동은 1924년경까지 계속되지만 이 시기에 이르면 日帝에 의해서 의열단의 전모가 거의 드러나게 되고 이후 東亞, 朝鮮 등 신문에 의열단의 행적이 자주 보도된다. 김원봉은 행동 노선의 다양화를 피하였으며, 1929년에 의열단 上海 지부에서 급기야 해체 성명을 낸다. 이후 北京을 중심으로 안광천 등과 연계하여 朝共 재건활동에 임하여 政治學校<sup>(9)</sup>를 설립하기도 하지만, 1932년에 이르던 의열단 활동을 재개하여, 南京 근처에 中國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朝鮮革命幹部學校<sup>(10)</sup>를 열게 된다. 이 학교는 1932~35년 사이에 116명의 졸업생을 냈으며 육사는 제 1기(1932.10~1933.4) 졸업생 26명중 한 사람이었다. 교과목은 政治科, 軍事科, 術科, 秘密工作科<sup>(11)</sup>로 나뉘어 있었다고 하나 학생들이 그중 어느 하나만을 전공하였다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다. 中國 국민당 측이 김원봉을 지원한 목적은 이 간부 학교의 수료생들을 통해 日滿 요인의 암살, 주요기관의 파괴, 재단 반일단체와의 제휴 등에 있었다. 나중에 재

(8) 金元鳳과 義烈團의 活動에 대해서는 다음의 것 외에도 여러 논문이 발표되어 있음.

· 鹿嶋節子, “金元鳳의 思想と行動”(むくげの會編, 「朝鮮一九三〇年代研究」, 東京:三一書房, 1982)

· 盧景彩, “金元鳳의 獨立運動과 그 思想”(「白山學報」 제 30, 31 합호, 1985)

(9) 일제는 이를 레닌主義政治學校라 부름.

(10) 다른 명칭은 中國軍事委員會 幹部訓練班 第六隊.

(11) 鹿嶋節子, 앞 글, pp. 93f. 참조.

구체적인 교과요목은 군사교육, 폭탄제조법, 폭파술 이외에 정치, 경제, 사회, 철학뿐만 아니라 각국 혁명사, 삼민주의, 의열단사, 당조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함.

원금이 점차 떨어지는 등으로 사정이 나빠지게 되자 3기생을 마지막으로 배출하고 자연 간부학교는 호지부지하게 되었지만 이후 김원봉은 정치적으로<sup>(12)</sup> 그리고 군사적으로 상당한 세력을 확보한 채 민족 해방운동을 벌이게 된다.

여기서 의열단 내지 김원봉의 민족 해방운동이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었던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들의 민족 해방운동은 國權恢復을 통한 民族保全과 동시에 경제적 혁명을 통한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설정하고 있다. 먼저 그들의 4대 강령 중 ‘驅逐倭奴’와 ‘光復祖國’이 한 짝이라면 ‘打破階級’과 ‘平等地權’이 한 짝을 이룬다. 이 두 개의 짝은 그대로 우리의 근대 사상의 두 흐름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김원봉의 초기 사상이 결코 민족주의 노선만을 따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당시 계급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으레 민족을 앞에 내세웠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 運動線上에 民族運動과 社會運動의 두 가지 思潮가 나뉘어 있는 것은 事實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近日에 民族運動과 社會運動의 關係에 對하여 討論한 文字도 種種 보게 됩니다. 이에 對하여 나의 意見을 簡單히 말하면 우리 朝鮮 사람의 處地로는 民族運動者와 社會運動者의 聯絡과 合同이 잇서야 한다기 보다는 民族運動이 곧 社會運動이 되여야 할 것이며, 社會運動者가 곧 民族運動者가 되여야 할 것이라 합니다. 朝鮮民衆의 生存繁榮 自由平等을 爲하여 奮闘努力한다는 그 實質問題에서 두 가지 다른 것이 무엇 잇습니까<sup>(13)</sup>

물론 이런 정도의 소견은 일종의 상식적인 발언에 그치고 있을 뿐이지만 그가 민족 해방운동을 위한 사상의 선택을 계급주의에서 가져왔다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종족적인 차원에서의 투쟁보다는 계급적 차원에서의 투쟁이 보다 현실적이며, 우선적으로 요청된다는 판단에 의한 결과일 것이다.

種族의 鬪爭이 究竟은 階級의 鬪爭이 되겠고 階級의 鬪爭이 곧 種族의 鬪爭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맑스」의 共產黨宣言에 말하기를 「過去一切의 歷史는 階級鬪爭의

(12) 여기서 정치적이라 함은 그가 民族革命黨 결성(1935), 朝鮮民族戰線聯盟 결성(1937)에 참여하고 金九와 연명 선언(1939), 臨政에의 참여(1942) 따위를 가리키지만 이런 일련의 활동이 온전히 ‘政治的’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3) 金元鳳, “合致되는 두 運動”(「東亞日報」, 1925. 2. 20~21). 이 글은 김원봉이 직접 작성한 글이 아니고 기자가 대담한 결과를 기고 형식으로 정리한 글이다. (지금까지 김원봉의 사상을 다룬 논문들에서 인용되지 않았음)

「歷史」라 하였습니다. ○○의 民衆이 朝鮮의 民衆을 ○○하였고 ○○無產者가 朝鮮의 無產者를 ○○하는 것이 事實이 안임닛가. 朝鮮內에 年年히 移住하는 移民이 日本에서는 無產者 아니엇던 것이 업지마는 朝鮮에 와서는 二三年만 지나면 有產階級이 되기 쉽습니다. (中略)

엇던 外來의 固定된 思想과 劃一한 運動方略을 그대로 引用하여다가 朝鮮民衆으로 하여금 盲從하도록 한다는 것은 取치 안습니다. 朝鮮民衆의 特殊한 處地와 環境을 卞라서 그 實地에서 內的으로 生長發育하는 運動이라야 비로소 生命과 根氣가 잇슬 것임니다. (14)

김원봉이 코민테른의 조언이나 일본의 堺利彦, 山川均<sup>(15)</sup> 등의 운동 방침을 부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신이 계급 타파와 평등한 토지 소유권을 위한 구체적 방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가 정한 〈公約十條〉<sup>(16)</sup>에도 의열단 단원의 행동방침만이 제시되었을 뿐이며 단지 〈暗殺對象〉에 ‘反民族的 土豪劣紳’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김원봉 자신이 자기들의 사상적 노선을 분명히 드러내고 나아가 행동 방침의 정당성까지를 성문화시킬 능력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그것은 앞의 인용문에서도 드러나는 바였다. 오히려 김원봉 내지 의열단의 무력에 의한 테러도발이 독립운동의 차원에서 정당성을 갖는 것은 申采浩의 〈朝鮮革命宣言〉에서이다. 김원봉이 스스로 이 글을 의열단 선언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처럼<sup>(17)</sup> 문장 작성은 신채호가 했지만 그 내용은 거의가 김원봉의 사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원봉과 신채호의 만남은 1922년 겨울 북경에서 이루어졌다. 이때 김원봉이 자기들의 활동 취지를 설명하고 그 지침이 될만한 선언문을 기초해 줄 것을 간청하였던 것이다. 이에 호응하여 신채호는 上海에 가서 의열단의 폭탄 제조소를 시찰한 후 〈朝鮮革命宣言〉을 1923년 1월에 완성하였던 것이다. 그 경위야 어떻든 간에 신채호는 이 글을 통해서 당시 지식인들의 구국 항쟁 방법을 전면적으로 비판 경계하고 참다운 투쟁은 암살, 파괴 등 가장 극렬한 방법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18)

강도 일본이 우리의 생명을 초개같이 보아…… 도처에서 주민을 도륙한다. 촌락

(14) 위와 같음.

(15) 山川均의 “無產階級の 運動方向”이 「東亞日報」 1925년 1월 3일자에 이미 게재된다.

(16) 盧景彩, 앞글, p. 287 참조.

(17) 金元鳳, 앞 글 첫머리 참조.

(18) 이런 방법의 무정부주의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愼鏞廈, 「申采浩의 社會思想 研究」(한길사, 1984), pp. 242-243 참조.

을 불사른다. 재산을 약탈한다. 부녀를 욕보인다. 목을 끊는다. 산 채로 묻는다. 불에 사른다. 혹 일신을 두 동가리 세 동가리로 내어 죽인다…… 하여 할 수 있는 데까지 참혹한 수단을 써서 공포와 전율로 우리 민족을 속박하여 인간의 〈산송장〉을 만들려 하는도다. (19)

단재는 일제의 침략상과 그로 인한 우리 민족의 참상을 매우 격렬하고 격앙된 어조로 토설하며 기미 이후의 문화정책에 부응한 문화운동이 전혀 무의미함을 역설한다. 생존권 자체가 박탈되어 종족의 보전 자체가 의문인 경우, 검열이나 삭제 등의 압박을 받으며 일제의 비위에 거스르지 아니할 정도의 언론 따위는 오히려 이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 속임수라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김규식이나 이승만 등이 펴던 外交의 방법이 오히려 2천만 민중이 용기있게 매진하는 의기를 없애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동시에 ‘시세를 짐작한다는 이들’이 일본에 대항하기 위한 힘을 먼저 길러야 한다는 준비론도 부정하고 있다. 그는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민중에 의한 직접 혁명 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은 민중이 민중의 전체를 위하여 혁명적 선구가 되어야 하며 그 혁명은 무조건 폭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폭력의 대상을 열거하기를 조선총독 및 각 관공리, 일본 천황 및 각 관공리, 정탐꾼, 매국적, 적의 일체 시설물 이외에 각 지방의 반민족적 토호 지주와 혁명 방해자를 지정하고 있다. (20) 이는 후에 ‘義烈團의 七可殺’로 정리된다. 단재는 일본에 대한 파괴의 의의를 ① 이민족 통치의 파괴, ② 특권 계급의 파괴, ③ 경제약탈 제도의 파괴, ④ 사회적 불균형의 파괴, ⑤ 노예적 문화 사상의 파괴에 두고 있다. 이런 항목의 설정에는 국권회복과 민중의 평등 사회건설이라는 두 가지 차원이 가로 놓여져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한 절대적인 방법은 민중에 의한 직접 폭력혁명일 뿐이며 그것을 위해 의열단 단원들은 선각자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신채호가 나중에 무정부주의를 본격적으로 부르짖고, (21) 김원봉이 1928년경 ML계와 손잡으면서 좌경했다고 하는 것도 초기의 이 선언의 연장선상에

(19) “朝鮮革命宣言”(安乘直編, 「申采浩」, 한길사, 1979), p.188.

(20) 윗 글, p.194.

(21) 신채호가 무정부주의 활동을 벌이는 것은 1925년 이후라고 생각된다. 그의 무정부주의 사상은 크로포트킨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보다는 중국의 초기 무정부주의자들, 北京大學의 社會主義研究會와, 젊은 巴金에게서 먼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놓일 뿐이다. 그리고 이 선언의 정신이 바로 육사 사상의 또 다른 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원봉이나 신채호의 이런 사상이 당시 중국의 젊은 지식인들을 휩쓸었던 혁명의 열풍이나 무정부주의 사상과 크게 멀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에서의 혁명운동은 反儒敎思想의 전개로부터 출발한다. 康有爲와 梁啓超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陳獨秀는 신문화운동의 일환으로 「新青年」을 간행하여 “현대 중국의 건설에는 전통적인 이데올로기가 방해가 된다”는 등의 논지를 전개한다.<sup>(22)</sup> 한편 무정부주의자 師復을 추종하던 무리들이 주도하여 1919년 새마을운동을 일으키기도 했고, 그 운동 성격의 과격성은 胡適에 의해 비판을 받기도 한다.<sup>(23)</sup> 이런 일련의 反儒敎 사상운동의 선상에 신채호의 〈朝鮮革命宣言〉이 놓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선언이 민족주의와 무정부주의를 한데 엮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의 첫 책임자였던 陳獨秀도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을 한데 묶어 전개시켰던 것이다.

한편 육사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魯迅도 이 신문화운동 세력의 한 사람이었다. 중국의 고리끼라고 불렸던 魯迅은 유교적 전통에 대하여 철저히 비타협적 태도를 지닌 채 1930년 경에는 瞿秋白과 함께 上海에서 좌익작가연맹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그의 작품에는 뼈에 스미는 조소와 풍자가 있지만, 민족적 휴머니즘이 그와 함께 자리잡고 있었다. 육사와 노신은 1932년 6월에 만났고 노신의 사상이 육사의 행동에 또다른 영향을 끼쳤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육사가 노신을 만나지 않았었다면 육사가 시인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노신이 육사에게 끼친 사상적 영향은 육사의 글 〈魯迅論〉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 글에 의하면 노신이 예술과 정치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가가 육사의 의문 사항이다. 이에 대한 해답을 신채호는 제시한 적이 없다. 신채호에 의하면 식민지하의 모든 문화운동은 ‘노예문화’ 이기에 아무리 뛰어나도 ‘노예문화’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sup>(24)</sup>

果百萬의 餓鬼를 거뭇다 두고 一圓乃至五圓의 小說冊이나 팔아 一飽를 求하라는 文藝家들이 무삼 藝術家이나 金剛의 景이 아모리 조홀지라도 飢兒의 눈에는 一匙의

(22) 譚昌霖, 「中國現代政治思想史」(閔斗基譯, 知識產業社, 1977), p. 45 참조.

(23) 윗 책, p. 74 참조.

(24) 金允植, 「韓國近代文學思想史」(한길사, 1984), p. 23.



飯만 못하며……一圓이면 一家人口의 몇칠 生活할 民衆의 눈에 들어갈 수도 업는 二圓三圓의 高價되는 小說을 지어 노코 民衆文藝라 呼號함도 알미운 것이어니와 民衆生活과 接觸이 업는 上流社會 富貴家 男女의 戀愛事情을 그림으로 爲主하는 獎淫文字는 더욱 文壇의 羞恥이다. 藝術生活의 文藝라 하면 現朝鮮을 그리는 藝術이 되어야 할 것이며 人道主義의 文藝라 하면 朝鮮을 救하는 文藝가 되어야 할 것이나 只今에 民衆에 關係가 업시 다만 間接의 害를 끼치는 社會의 모든 運動을 消滅하는 文藝는 우리의 取할 바가 안이다. (25)

위의 논지에서 식민지하의 모든 문예 활동이 다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단재는 문학 작품이 反帝國, 反封建 사상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민중과 연대된 투쟁활동으로서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는 것이다. 육사의 경우 詩作 활동이 그가 받은 漢學의 테두리 내에서 선비로서 지니는 소양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결코 투쟁 활동과 배치되는 활동이 아니라고 합리화시킬 수도 있다. 선비정신이 전통적인 양반층을 토대로 이룩되었기는 하지만 육사 당시까지만 해도 역사의 전면에서 하강하는 계층의 정신으로 확정지을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닐 것이다. 물론 육사의 시에서 이 선비정신은 대로 귀족적인 엘리트 의식으로 변모되어 나타나는 부정적인 면도 지닌다. 그러나 육사는 의식적으로 그런 합리화를 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시와 행동의 일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을 것이다. 이런 노력의 배경에 산 채호보다는 바로 노신이 놓인다고 보여진다. 예술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육사의 의문에 대한 해답은 별다른 것이 아니었다. 헤겔과 루카치가 양자간에 저급과 고급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예술은 인식 수단으로서의 구실을 한다고 본 것처럼 노신도 정치적 목적 하에서 소설을 쓰고 번역 활동을 했던 것이다. 노신에 있어서는 예술은 정치의 노예가 아니었으며 적어도 예술이 정치의 선구자였던 것이다. (26)

“그러나 몇 사람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鐵의 방을 부술 희망이 절대로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렇다, 나는 물론 내 나름의 확신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희망에 대해서만은 말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결국, 나는 문장을 쓰기로 승락하였다. 이것이 곧 최초의 “狂人日記”라는 일 편이다. ……나의 소설이 예술과는 거리가 먼 것임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27)

(25) 申采浩, “浪客의 新年漫筆”(「東亞日報」, 1925년 1월 2일자).

(26) 李陸史, “魯迅論”(「陸史詩集 曠野」소수), p.110 참조.

(27) 김정화역, 「魯迅文集 第1卷」(일월서각, 1985) p.11.

육사가 노신에 얼마나 경도되었던가는 육사가 중국 정치에 관한 글을 쓸 때 철저히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점, 노신의 소설 〈고향〉을 번역한 점, 노신의 〈굿〉과 유사한 형식의 〈戀印記〉를 쓴 점 등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실제로 육사의 시작 활동이 노신처럼 정치적 의식하에 이루어졌던가는 의문이다. 시가 정치성을 띠기 위해서는 呪文이나 선전선동 형식의 차원에 머물거나 아니면 시대적 상황을 고발할 수 있는 서사적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육사의 경우 서정적 자아의 충실한 고백 형식을 갖추고 있는 시가 대부분이었다. 오히려 노신의 영향하에 놓인 글은 일련의 시사적인 평론들이다. 확실히 그의 저널리즘적인 태도에는 비판의 정신이 엿보인다. 그러나 당시 출판·언론 제도하에서 발표된 그의 글에는 식민지 현실을 타파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당시 관제 언론에 의하여 형성된 저널리즘의 풍토인 것이다. 이러한 저널리즘에 편승한 육사와 의열단원 내지는 독립투사로서의 육사의 거리는 현실과 유토피아만큼 먼 거리인 것이다.

육사가 중국에서 돌아왔을 때 식민지 조선의 상황은 기미 이전보다 더 처참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만주 사변(1931), 만주국 성립, 국제 연맹에서의 일본 탈퇴(1933) 등으로 조선은 점차 병참기지로 변한다. 한글맞춤법 통일안 반포(1933), 진단학회의 성립(1934), 여유당전서의 간행(新朝鮮社, 1934) 등의 국학 분야에서의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코민테른의 지령에 의해 新幹會<sup>(28)</sup>, 청년총동맹, 노동총동맹 등이 해소되기는 하였으나(1931), 이후 사회운동이나 실천이론의 전개 등은 극도로 제한되어 자생적인 민족해방 투쟁론은 전혀 형성되지 못한다. 한편으로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경제적 곤란은 점점 가중되었다. 일제에 의해 산미 증산계획이 정지되자 쌀값이 폭락하여 小農은 점차 몰락하고 이에 따라 만주로의 이민이 급증하며<sup>(29)</sup> 도시 노동자의 수도 급증한다. 군수공업의 발전이란 것도 일본 정부와 독점자본가에 의해 왜곡된 공업화일 뿐이었다. 비록 元山 노동자 총파업, 光州 학생운동, 端川 농민봉기 등의 투쟁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세찬 탄압을 면치 못했다. 이런 정세로 말미암아 육사의 행동은 당초 예정되었을 행동과는 달라지지 않을 수

(28) 趙芝薰 외저, 「新幹會研究」(동년, 1983) 참조.

(29) 이민에 대해서는 高承濟, “東拓移民의 社會史的 分析”(「白山學報」제14호, 1973)을 비롯한 일련의 논문 참조.

없었다. 그래서 그는 <新朝鮮>의 기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저널리즘에 편승하게 된다. 그가 쉽게 저널리스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노신의 영향뿐만 아니라 이미 그의 동생 李源朝가 조선일보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가 1929년에 조선일보 대구지사에서 일을 본 경험이 있다는 점 등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널리스트로서의 육사는 중국 時事에 대한 글을 통해서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정권이 서구 열강 및 일본 제국주의 세력과 결탁하여 반봉건 반식민주의를 부르짖는 국내의 참다운 민주세력을 어떻게 탄압하는가를 파헤침으로써 당시 중국 통치 권력의 反革命성을 날카롭게 규명해 내며, <예술 형식의 변천과 영화의 집단성>에서는 민중 집단의 운명을 중요시한다. 초기에 있어서의 이런 글들의 사상적 지표가 당시 계급 사상과 멀지 않음을 볼 수 있으나 그를 토대로 구체적인 투쟁론을 펼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널리즘에의 편승은 육사가 고유하게 지녔던 선비정신이나 무정부주의적인 혁명사상과 갈등을 일으켰다. 육사의 비평문은 점점 신변 잡거나 수필로 바뀌며, 중국에 대한 글을 쓰더라도 文學에 대한 내용에만 한정된다. 신변 잡사를 소재로 한 그의 간단한 글들이 정신적 갈등을 풀어내는 화해의 양식이 될 수 있었다면 뒷날 그가 北京에서 獄苦로 사망하지는 않았을지 모른다. 또 그의 詩的 활동도 1940년을 전후해서 그전보다는 더 왕성하게 진행되지만 시적 세계의 커다란 변모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서정시 형식은 애초부터 세계에 대한 화해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가 시인이거나 저널리스트로서 문단의 일각에 붙어있을 때 그는 현실의 미망 속에 빠져 들고, 그가 감옥에서 고초를 겪을 때 오히려 그에게는 유토피아로의 길이 열렸던 것이다.

### Ⅲ. '무지개' 해석

<絶頂>의 참다운 의미를 해석하려 할 때 육사의 사상적 문맥은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 작품은 육사의 대표작 중의 하나로서 많은 논자들에 의하여 해석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 작품의 제 4연,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된 무지갯가 보다.

에서의 “강철로 된 무지개”를 둘러싼 해석이 항상 문제되어 왔다. 이에 대한 선편은 朴斗鎭 교수에 의해서이다.

陸史는 ……그 絶望的인 죽음의 極限境을 <무지개>로 想定함으로써, 絶對的인 詩美의 世界, 겨울 자체와 “강철”로 된 絶望의 테두리를 美化시켜 음미하는 精神的 餘裕, 情緒的 餘地을 남김으로써 소극적인 현장 탈출, 幻想的이지만 情緒的 眞實을 통한 感情的 超克의 통로를 마련한 것이었다. (30)

이런 해석이 비교적 온당할지 모르지만 金興圭 교수의 다음과 같은 지적을 받았다.

피할 수 없는 문제는 이 해석과 앞의 해석(<絶頂>의 전반부에 대한 해석—인용자 주)이 걸맞지 않고, 따라서 작품의 구조를 異質的 接合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민족이 처한 극한의 정황을 묘파한 정신이 그 절망적인 죽음의 極限境을 「美化시켜 음미하는 精神的 餘裕」로 초극한다는 해석은 아무래도 前後가 통하지 않는다. 이를 승인할 때, 陸史는 집단적 위기 앞에서 幻想을 통한 개인적 구제를 도모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31)

위와 같은 날카로운 지적을 받게 된 데에는 두 사람이 파악한 陸史의 세계관이 상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박두진 교수의 해석은 육사를 투철한 역사 의식, 민족의식과 함께 불굴의 투혼을 지닌 志節詩人<sup>(32)</sup>으로 신성화 내지 우상화한 선입견<sup>(33)</sup>의 결과이며 김흥규 교수는 가급적 이런 선입견을 배제하려 한 태도에서의 비판이다. 그러나 박두진 교수와 별차이가 없는 인식을 지닌 김종길 교수의 다음과 같은 해석에는 매우 적절하다고 평을 하고 있다. (34)

육사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뚜렷하게 비극적인 삶을 살고 간 시인이라면, 그의 삶은 바로 「절정」에서 구극적인 시적 표현을 얻은 셈이다. ……「절정」은 하나의 한계 상황을 상징하지만 거기서도 그는 한 발자국의 후퇴나 양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매운 季節’인 겨울, 즉 그 상황 자체에서 황홀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그 황홀은 단순한 도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강철과 같은 차가운 비정(非情)과 날카로운 결의를 내포한 황홀이다. (35)

(30) 朴斗鎭, 앞 글, p. 111.

(31) 金興圭, 앞 글, p. 253.

(32) 李殷相, “陸史小傳”(白基萬編, 「씨뿌린 사람들」, 思潮社, 1959)에서의 용어임.

(33) 金興圭, 앞 글, p. 229 참조.

(34) 윗 글, p. 254 참조.

(35) 金宗吉, 앞 글, p. 78.

김종길 교수 또한 '신성화 내지 이상화의 압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해석이 지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김종길 교수의 해석은 자의성을 가급적 배제하고 통사적 문맥의 객관적 상황에 충실하여 "겨울=무지개"의 도식을 깨뜨리지 않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일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시 자체의 언어적 해석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우리의 현대시사를 바라보는 '애정의 눈'일 것이다. 이 애정의 눈은 신성화 내지 이상화의 또다른 변용일 수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이 애정의 눈까지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육사가 시의 이미지 사용이라든가 결구 방식에 이르기까지 명징한 시학적 체계를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는 것이다.

'강철로 된 무지개'에 대한 해석의 일환으로 陸史의 詩에서 '무지개'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살피기로 하자. '무지개'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작품을 발표순으로 보면 아래와 같고, <絶頂>은 그 중간에 위치한다.

- ① <江 건너간 노래>: 「批判」 1938. 4.
- ② <雅片>: 「批判」 1938. 11.
- ③ <絶頂>: 「文章」 1940. 1.
- ④ <獨白>: 「人文評論」 1941. 1.
- ⑤ <芭蕉>: 「春秋」 1941. 12.

이들 작품은 육사가 문단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잡은 뒤의 작품들이고 또 그만큼 시를 제작하는 품이 수준을 얻은 뒤의 작품들이다. ①, ②, ④, ⑤를 순서대로 살펴 보기로 하자.

설달에도 보름계 달 밝은 밤  
 앞내江 쟁쟁 얼어 조이든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江 건너 갔소

江 건너 하늘 끝에 沙漠도 다은 곳  
 내노래는 제비같이 날려서 갔소

못잇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가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조

沙漠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오는 밤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데맨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밤에 江 건너 갔소<sup>(36)</sup>

이 이전의 육사의 시에선 식민지 현실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나 구절들이 직접적으로 노출되곤 했다. 이것은 그의 시선이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되었다기보다는 스스로를 둘러싼 외부에의 통찰로 이어졌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는 외부에의 직시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볼 뿐이었으며 결코 그 외부에 직접 다가가거나 부딪치지 않는다.

- 시멘트 장판 우 그 많은 囚人들(〈黃昏〉)
- ×(獄—인용자 추장)에 간 말아들(〈春愁三題〉)
- 軍需夜業의 젊은 동무들, 火田에 돌을 줍는 백성들(〈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 팔려온 冷害地處女, 思想善導의 염탐군, 라디오의 修養講話(〈失題〉)

위와 같은 식민지 현실에의 직접적인 관심이 서정 양식에 수용되었을 때 그것들이 지니는 시적 기능은 서정적 자아의 내면의 드러냄과 서로 상충될 수도 있다. 육사는 이런 외부에의 단편적인 관심을 거두고 스스로의 내면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路程記〉나 〈海潮詞〉 등을 발표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작품이 감정의 직접적인 발산에 그친 반면에 〈江 건너간 노래〉에서는 스스로의 신념을 시화시키기에 이른다. 이 작품에서 ‘노래’의 의미는 〈曠野〉에서의 ‘노래’와 마찬가지로 ‘미래를 향한 스스로의 서약’을 가리킨다. 〈曠野〉에서의 시작 태도가 언어의 절제성을 염두에 두었다 할지라도 작위적인 기교에 치우쳐 직서적 서술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이 작품에서는 ‘집조차 없는 못잇을 계집애’와 같은 이질적인 담화가 오히려 작품의 구조를 단선적이지 않게 한다. 또 제 8행 ‘그만 어느’에서의 리듬의 갑작스런 파탄도 시상의 전개에 일치되는 파탄이다. 여기서의 ‘무지개’도 단순히 동화의 세계에서와 같은 황홀한, 꿈과 같은 의미만을 지니지는 않는다. 무지개는 밤에 대한 비유적 언어이고, 그 밤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에 무지개는 현실 내지 일정한 시공의 초월을 가능케 해 주는 다리의 기능을 갖는다.

다음 〈鴉片〉에서는 ‘다리’로서의 일차적 의미는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

(36) 「批判」에 발표된 것을 따르되 표기를 현대식으로 고쳤다. 현대어로 고치기에 애매한 곳은 그대로 두었다. 예를 들어 “沙漠도 다른 곳”의 ‘다른’ 같은 경우이다.

지만 작품 전체에서 시인의 감정이 절제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나릿한 南蠻의 밤  
 燔祭의 두레불 타오르고  
 차들보다 찬 냇이 있어  
 紅疫이 발반하는<sup>(37)</sup> 거리로 쏠려  
 거리엔 노아의 洪水 넘쳐 나고  
 위태한 섬우에 빛난 별하나  
 너는 고 알몸동아리 香氣를  
 봄바다 바람실은 돛대처럼 오라  
 무지개같이 恍惚한 삶의 光榮  
 罪와 곁들여도 삶죽한 누리

신석초의 회고에 의하면 이 시는 어느 여인에게 바친 연애시라고 한다. 것처럼 이 시는 광복에 대한 신념 따위와는 거리가 멀고 다분히センチ멘탈한 정조가 넘치는 작품이다. 여기서의 무지개는 문자 그대로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무지개 다리이다. 이 무지개 다리는 나와 별을 이어주는 다리이며 善과 惡, 罪와 無垢의 분별을 지배하는 이성의 세계를 벗어나게 해 주는 다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 도덕적 이성의 세계를 넘어서고 신념의 압박을 벗어나는 것은 현실적인 삶의 막바지에 육사가 이른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재가 경계했던 노예문화의 차원에 안주해 버리는 부정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의 시에 흔히 등장하는 밤은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게 하는 시간인 반면에, 도덕적 자아로부터의 탈출을 가능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한편 〈獨白〉은 표면적으로는 定處 없는 자, 뿌리를 상실한 자의 고독한 비애가 담담하게 노출되어 있으나 육사의 강한 의지와 신념이 형상화된 작품이다. 총 6련으로 된 이 시의 1,2련에서는 방랑자로서의 자화상을 그리고, 3련에서는 앞일의 막막함을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4~6련도 제각기 독립적인 의미의 단락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가 하나의 작품이라는 것은 각 연이 3行씩이고, 그리고 각 행의 음보량이 거의 동량적이며, 특히 각 연의 끝을 마치 韻字를 채용한 것처럼 ‘와네, 듣네, 흘리네, 지네, 됴세,

(37) 기존의 陸史詩集들에 ‘만발하는’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李源朝에 의했다.

감세'의 '하계체'의 의도적인 '기' 음으로 구성하고 있는 형식적인 특성에서 두드러질 뿐이다.

船窓마다 푸른 막 치고  
 촛불 鄉愁에 찌르르 타면  
 運河는 밤마다 무지개 지네.

— 제 4 연 —

여기서의 무지개는 무지개란 단어가 지닌 속성에 의해서만 그 의미가 파악될 뿐이다. 왜냐하면 밤이 오면 오히려 日常의 무지개는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밤은 헤매임과 망설임의 사이에 잠시 갖는 쾌락이기도 한 휴식의 시간이다. 따라서 낮의 日常이 초조하고 긴장된 삶의 공간이라면 밤은 그런 초조와 긴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특히 運河 또한 육상의 길에 대립되는 통로이다. 이 통로에 무지개가 선다("무지개 지네"는 "무지개가 선다"로 봐야 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주체적 의지 속에서는 결코 도달하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로 화자를 인도하는 보상적 성격의 이미지로 파악된다. 휴식의 공간에서 만나는 경이의 무지개, 그것은 먼 미래에의 도달을 가능케 해 주는 다리인 셈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의 강한 의지가 뚜렷이 부각되는 것은 제 5 연에서이다.

박쥐 같은 날개나 퍼면  
 아주 흐린 날 그림자 속에  
 떠서는 날짙는 사복이 됨세

이런 진술의 정확한 문맥을 가늠하기란 상당히 어렵지만 결정적 순간에서의 죽음에 대한 각오 같은 것이 담겨 있다고 보여준다. '아주 흐린 날'은 <日蝕>에서의 '하나밖에 없는 내 날을 불개가 먹은' 날과 같은 의미선상에 있으며 '사복'은 黃玑의 '虫沙'와 통한다고 보여진다.<sup>(38)</sup> 대명천지의 세상과는 절연되어 어둠속에서만 비상할 수 있는 박쥐의 이미지는 육사의 시에서 흔히 발견된다. 여기서 어둠속의 비상마저 거부한 것은 극도로 절망적인 현실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나타낸다. 무지개는 이 의지와 연결된다.

(38) <燕谷戰場弔高義將光洵>(「黃玑全集上」, 亞細亞文化社, 1978) p. 338.

千峰燕谷鬱蒼蒼	小劫虫沙也國殤
戰馬散從禾隴臥	神鳥齊下樹陰翔
我曹文字終安用	名祖家聲不可當
獨向西風彈熱淚	新墳突兀菊花傍



다음 〈芭蕉〉에서의 ‘무지개’는 앞의 무지개들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항상 앓는 나의 숨결이 오늘은  
海月처럼 게을러 은빛 물결에 뜨나니

파초 너의 푸른 옷깃을 들어  
이덧 타는 입술을 축여주렴

그 옛적 「사라센」의 마즈막 날엔  
期約없이 흩어진 두 날 녀이였어라.

젊은 여인들이 잡아 못논 소매끝엔  
고온 소금조차 아직 꿈을 짜는데

먼 星座와 새로운 꽃들을 볼때마다  
잊었던 季節을 몇번 눈 우에 그렸느뇨

차라리 천년 뒤 이 가을 밤 나와 함께  
빛소리는 얼마나 긴가 재어 보자

그리고 새벽하늘 어데 무지개 서면  
무지개 밟고 다시 끝없이 헤여지세

육사의 시에서는 모더니즘의 세례를 받은 흔적이 종종 발견되지만 이 작품도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언어의 유희에 머물고 만 느낌이 있다. 우리 시사에서 모더니즘이란 것은 단순히 서구지향이라든가 언어유희적인 측면만이 강조된 상태로 제시되었다기보다는 보수적 전통을 거부하고 폐쇄된 현실에서의 일탈을 추구하기 위한 운동의 하나였다고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들이 전통적인 감상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시적 전통 그 자체에서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이 작품도 바로 시적 전통 또는 민족 정서의 전통과 모더니즘이 혼효되어 실패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여기서의 무지개의 의미를 단순히 단어의 직접적 의미에만 국한시켜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아름다운 환상의 다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시간적으로는 그 옛적 사라센의 마지막 날부터 천년 뒤의 가을밤까지에 해당하는 시간적 이동과 하늘의 성과와 지상의 인간 세상 사이의 공간적 확대가 제시된 뒤의 무지개인 것이다. 따라서 이 무지개는 상당히 황당한 무지개로 모든 시공의 변위를

가능케 해 주는 무지개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의 작품들에서의 무지개가 현실적인 다리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서의 무지개도 표면적으로 처리된 대로의 헤어지기 위한 다리는 아닌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을 종합해 보면 무지개는 황홀한 환상의 세계에 대한 표상이면서 동시에 두 가지 대립되는 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신념 내지 소망으로서의 다리의 의미를 지닌다. 그 다리는 단순히 '이편과 저편을 잇는 다리'이면서 '황홀한 환상' 속에서의 다리인 것이다. 앞 장에서 살펴본 육사의 유토피아 지향 사상과 현실 지향 사상의 사이에 이 무지개가 놓일 가능성이 이에서 생긴다. 이런 무지개의 개념을 가지고 <絶頂>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물론 한 단어가 동일한 시인에 의한 서로 다른 작품에서 반드시 동일한 의미체계를 지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도입에 의한 시도이지만 작품의 발상이 시인 자신의 기본적인 사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가능성은 확실성으로 대체된다.

이 <絶頂>과 다른 시들과의 형태상의 차이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絶頂>이 4연 8행으로 되어 비교적 단시에 들어가고 다른 것들은 5~6연으로 약간 길다는 점이다. 또 각 시들은 각련 동행의 정형적 구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 <路程記>나 <曠野>와 달리 각 행의 음절량이 비슷하다. 이런 成型意識은 漢詩에 대한 소양을 지닌 육사로서는 당연히 지닐 수 있는 것이다. (39) 육사의 시작법이 당시 詩壇의 조류와 멀리 떨어져 있던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비록 시어의 선택이나 통사적 운용방법에서의 기술적인 측면은 재고되어야 했을지 모르지만 적당한 비유나 상징의 사용 등의 기법에서는 결코 모더니스트나 생명파의 그것들에 뒤지지 않았다고 보여지며 오히려 시를 위한 시, 즉 작위적인 시의 생산 풍조에 말려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부에서 유행하던 서사적 산문시같은 것은 전혀 쓰지 않았다. (40)

매운 계절의 채썬 채썬에 갈겨  
마춤내 북방으로 휘쓸러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高原  
서릿발 칼날진 그 우에 서다

(39) 鄭漢樸, 曹敞煥의 앞 글 참조.

(40) 陸史詩에 대한 비교문학적 연구가 행해진다던 陸史의 다른 한계가 드러날지도 모른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이 시에서는 화자의 행동이 시상의 모티브가 되고 있다. 1련에서 北方으로의 휩쓸림은 피동적 행동이라기보다는 화자 스스로 선택한 주체적 행동이다.<sup>(41)</sup> 그의 시에서 北方 지향이나 大陸에의 지향은 흔히 발견된다. 그리고 그 북방이나 대륙을 지배하는 시간은 흔히 겨울이다. <曠野>에서의 대륙은 始原의 땅이며<sup>(42)</sup>, <꽃>에서의 북방은 絶命의 땅으로 생명에 대한 외경이 극에 달한 지대인 것이다. 북방 내지 대륙은 투쟁의 거점이기도 하여 이와 반대쪽에 고향이 놓인다.

구겨진 하늘은 묵은 애기책을 편듯  
돌담울이 古城같이 둘러싼 山기슬  
박쥐 나래 밑에 황혼이 묻혀 오면  
草家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故郷을 그린 墨畵 한폭 즈미 쳐

—「草家」 제 1련

수만호<sup>(43)</sup> 빛이래야 할 내 고향이언단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 우에 어끼만 푸르더라

—「子夜曲」 제 1련

고향은 육사에 있어서 과거의 땅이고 북방은 미래를 향한 그의 지향지인 것이다. 제 2련에서 화자가 도달한 극점은 그의 강인한 의지와 신념에 의한 행동의 극점인 것이며, 여기서의 정지는 단순한 행동의 정지가 아니라 그 다음 행동의 전기를 위한 마무리로서의 정지일 수도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행동의 한계에 도달한 상태를 가리킨 것이다. 제 3련에서 '무릎꿇기'의 기

(41) 이를 김용직 교수는 비극적 행동이라 지적함. 앞 글 참조.

(42) 金宗吉 교수가 <曠野>에서의 '들렸으랴'를 '들렸으리라'의 축약으로 보는 것은 오류로 생각된다.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의 '어데'가 경상도 방언에서 부정어로 흔히 쓰이는 점을 감안하면 닭우는 것 같은 잡된 소리가 일체 들리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또 제 4련의 '뿌러라'도 '뿌리러라'의 축약형이기보다는 주체 스스로에 대한 의지적 명령의 명령형 어미가 활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위의 둘이 축약형이라면 제 2련의 '못하였으리라'의 경우도 '못하였으랴'로 표기되어야 할 것이다.

(43) 水珊瑚(水曼胡; 水瑪璃).

호는 바로 천지신명에 대한 기원의 동작인 것이다.

목숨이란 마—치 깨여진 배쫓각  
여기저기 흐터져 마을이 한 구죽죽한 漁村보다 어설푸고  
삶의 퇴끝만 오래묵은 布帆처럼 달아매였다.

남들은 깃뱃다는 젊은날이엿전만  
밤마다 내꿈은 西海를 密航하는 「쟁크」와 갖해  
소금에 짚고 潮水에 부뜨리울넋다.

항상 흐릿한밤 暗礁를 버서나면 颶風과 싸워가고  
傳說에 읽어본 珊瑚島는 구경도 못하는  
그곳은 南十字星이 비쳐주도 았았다.

—「路程記」 1~3편

〈絶頂〉의 1, 2연에 해당하는 것이 이 〈路程記〉 전문일 수도 있다. 그가 단 몇 마디로 압축하고 또 과장된 어조를 사용하는 것은 그의 시에 있어서 독특한 기법이다. 그가 수시로 사용하던 영탄법, 그리고 극단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부사어도 동질의 차원에 속한다. 바로 이렇게 과장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한계상황에서 한발 재겨 디딜곳조차 없는 것은 기도의 불가능이자 하늘에의 미치지 못함인 것이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이 〈絶頂〉의 제 4연은 차라리 사족일 수도 있다.

1~3년까지의 화자의 행동이 유토피아 지향의 행동이라면 이 제 4연에 와서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유토피아와 현실 사이의 갈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갈등의 계절이 바로 겨울이다. 여기서 '겨울'과 '강철'과 '무지개'의 등식 관계를 그 통사적 배열에 따라 단순히 강철과 무지개가 결합하여 형성된 은유적인 조직으로 파악하여 기계적이고 산문적인 해독을 택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럴수록 '강철'과 '무지개'의 전혀 이질적인 이미지를 하나의 구조로 결합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강철과 무지개를 별도로 겨울과 결합시켜 이중적 구조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겨울은 강철의 이미지에 의한 차갑고 비정한 계절이면서 동시에 유토피아에의 지향이 좌절된 채 현실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계절인 것이다. 그리하여 화자는 황홀한 환상의 무지개, 현실과 유토피아의 다리 앞에서 이편과 저편을 결코 화해시키지 못한다. 이 화해에 대한 거부는 육사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였다.

## IV. 맺음말

우리가 한 인물의 정확한 모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가 상상하고 말하고 기록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서도 안되며 타인의 표현 속에서의 그의 모습으로부터 출발해서도 안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육사의 정확한 모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육사의 실제 생활의 과정으로부터 그 생명의 과정에 걸치는 이데올로기의 방향을 재현해야 할 것이다. 또 시적 형식이란 것도 시인이 그 자신의 이념 또는 그가 표방하는 집단전체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언어를 조직하고 활용하는 방식일 것이며, 하나의 관념이나 작품은 그것이 하나의 삶, 하나의 사고방식 전체에 통합될 때에만 그 진정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이육사의 사상을 살폈을 때, 그는 그가 선택한 행동, 그리고 그를 둘러싼 역사적 상황 사이에서 유토피아와 현실 사이의 갈등을 겪게됨을 보았다. 그의 사상의 기저는 선비정신이었으며, 이는 <청포도>에서처럼 때로 귀족적인 자기 도취 양상으로 표출되어 육사를 타락하게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제로부터의 민족 해방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추진력으로 작용했다. 이 선비정신에 맞추어 형성된 육사의 사상은 의열단의 김원봉 내지 「조선혁명선언」에서의 신채호가 주장하던 민중 격정 폭력혁명 사상과 동질의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서의 유토피아는 단순히 국권 회복을 통한 民族保全의 차원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라는 측면에까지 나아간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사상의 구체적 실천 즉 유토피아에의 지향과 현실적 제약 사이에는 너무도 큰 절망적 거리가 놓여 있었다. 그의 시 <絶頂>의 '무지개'는 바로 이 절망의 극점에서 보이는 이편과 저편을 넘나들 수 있는 다리였다.

따라서 그의 사상적 지향과 시를 서로 비추어 보면 그는 현실 속에서 끝까지 유토피아를 지향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그는 그 유토피아로 이르는 길을 숨기고 있었을 뿐이다. 그의 사상과 행동의 일치된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죽음 이외의 다른 해답이 쉽게 구해질 수 없다.

앞으로 육사뿐만 아니라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현대 시인들에 대한 새로운 조명은 계속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 참 고 문 헌

- 『陸史詩集』, 서울출판사, 1946.
- 『陸史詩集 曠野』, 螢雪出版社, 1971.
- 『李陸史全集』, 正音社, 1975.
- 『曠野에서 부르리라』, 文學世界社, 1981.
- 金時泰, 「現代詩와 傳統」, 成文閣, 1978.
- 金容稷, 「韓國現代詩研究」, 一志社, 1974.
- 金容稷, 「韓國近代文學論攷」, 서울대 出版部, 1985.
- 金允植, 「近代韓國作家論攷」, 一志社, 1974.
- 金允植, 「韓國近代文學思想史」, 한길사, 1983.
- 金宗吉, 「眞實과 言語」, 一志社, 1974.
- 金鍾哲, 「詩와 歷史的 想像力」, 文學과知性社, 1978.
- 金興圭, 「文學과 歷史的 人間」, 創作과批評社, 1980.
- 金澤東, 「韓國現代詩人研究」, 民音社, 1977.
- 盧景彩, “金元鳳의 獨立運動과 그 思想”, 『白山學報』 제 30, 31 합호, 1985.
- 朴斗鎭, 「韓國現代詩論」, 一潮閣, 1971.
- 白基萬編, 「씨뿌린 사람들」, 思潮社, 1959.
- 宋相燾, 「騎驢隨筆」, 국사편찬위원회, 1971.
- 愼鏞廈, 「申采浩의 社會思想研究」, 한길사, 1984.
- 安秉直編, 「申采浩」, 한길사, 1979.
- 임영태編, 「根民地時代 韓國社會와 運動」, 사계절출판사, 1985.
- 鄭漢模, 「韓國現代詩의 現場」, 博英社, 1983.
- 鄭漢模, “陸史詩의 特質과 詩史的 意義”, 『나라사랑』 16집, 1974.
- 趙芝薰外, 「新幹會研究」, 동녘, 1983.
- 曹敏煥, “李陸史論”, 『관악어문연구』 제 2 집, 1977.
- 黃 玟, 「黃玟全集」, 亞細亞文化社, 1978.
- 魯 迅, 「魯迅全集 第 1 卷」, 김정화역, 일월서각, 1985.
- 譚昌霖, 「中國現代政治思想史」, 閔斗基譯, 知識產業社, 1977.
- 丸山昇, 「魯迅評傳」, 韓武熙譯, 일월서각, 1982.
- むくげの會編, 「朝鮮一九三〇年代研究」, 東京:三一書房, 1982.